



일본의 대학 진학지도 현황

고토 토시키 | 홋카이도무로란공업고등학교 교감

I.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진학교(進學校)'라고 일컬어지는 몇 개 공립고등학교의 실재를 사례로 일본의 진학지도 실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고등학교는 모두 매년 100명 전후(졸업생의 30~40%)의 재학생을 도쿄대학교(東京大學), 교토대학(京都大學)에 수명을 포함해 국립대학 또한 공립대학교(이하, 국·공립대학이라고 함.)에 합격시키고 있는 실적을 내는 진학교이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국립대학인 홋카이도대학교(北海道大學)에는 매년 수십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나아가 와세다대학교(早稻田大學) 및 게이오대학교(慶応大學), 도지샤대학교(同志社大學) 등 일본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한 사립대학에도 합격시키는 실적도 있는 학교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진학지도의 실체는 일본의 진학교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수험지도(진학교의 과반수 이상이 비슷한 실정임.)라고 보아도 좋다. 미리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아

래에서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이 일본을 대표한 의견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II. 학생의 실태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립고등학교 학생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의 하나는 90% 이상의 학생이 '국·공립대학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도 그와 같은 동일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교입시에 대한 중학교에서의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력층도 균등하다. 이들 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이 홋카이도 공립고등학교 입학시험(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즉 학력차가 비교적 적은 집단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희망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도 '진학지도'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며, 초점을 맞춘 진학지도가 가능하다. 학생의 기질을 보면 성실하고 노력형인 학생이 대부분이다. 필

“

일본에서는 고교입시에 대한 중학교에서의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력층도 균등하다. 이들 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이 홋카이도 공립고등학교 입학시험(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즉 학력차가 비교적 적은 집단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희망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도 '진학지도' 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며, 초점을 맞춘 진학지도가 가능하다.

”

자가 다룬 고등학교의 경우에서도 모두 비행 사고에 따른 학생지도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한 진학지도에 열중할 수 있다. 즉 희망하는 진로가 동일하고, 학력도 상위 그룹이며 균등하다는 것, 그리고 학부모의 지원도 적극적이라는 점, 근면하고 솔직한 학생이 많다는 것 등을 특징적인 점으로 들 수 있다.

Ⅲ. 진로지도와 학년회의, 담임

진학지도 계획은 '진로지도부'에서 작성한다. 어느 고등학교든지 설치되어 있는 분장으로는 교육과정 관련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 복장·두발지도, 지각지도, 고등학생으로서 적절치 않는 행동(흡연, 폭력, 도둑질 등)을 하는 학생지도, 학생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도·지원하는 '학생지도부', 그리고 학생의 진로를 지도·지원하는 '진로지도부'의

3개 부서가 있다.

진로지도부에서 작성된 계획에 따라 각 학년회의(20명 정도의 교사 모임)가 실질적인 지도를 행하게 된다. 실시의 시점에서 학년회의의 특색이 발휘됨으로써 혹은 동일 학년 내에서도 담임의 특색 및 방침 여하에 따라 진로 실현의 성과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표 1〉은 3년간의 진학지도 계획(진로지도부 LHR 연간계획)이다. LHR이란 'Long Homeroom'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임.)에서는 주 1회 연간 35회의 학급활동(ホームルーム活動)이 표준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이 시간은 학습에 관한 것, 학생지도에 관한 것, 진로지도에 관한 것, 학교행사에 관한 것, 학생다움에 관한 지도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시간이 진로에 관한 것에 사용

〈표 1〉 3년간의 진학지도 계획(진로지도부 LHR 연간계획)

시 기	내 용
입학전	체험입학, 중학교 방문(적절한 시기에 방문), 중·고 연계사업(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에 가서 수업진행)
1학년	4월 : 진로희망조사(제1회), 개인면담(제1회) 6월 : 선배의 조언 8월 : 진로적성검사, 3자면담(제1회) 9월 : 진로 시간(자신의 꿈과 현실에 대해서), 개인면담(제2회) 10월 : 진로 강연회 12월 : 진로희망조사(제2회), 직업관 육성(직장실습에 대해서) 1월 : 3자면담(제2회) 2월 : 개인면담(제3회)
2학년	4월 : 진로희망조사(제1회), 개인면담(제1회), 진로 시간(자신 알기) 6월 : 학년집회(진로의 개략적 상황), 선배의 조언 8월 : 3자면담(제1회) 10월 : 진로 강연회 11월 : 모의시험 분석과 향후 학습에 대한 마음가짐, 개인면담(제2회) 12월 : 진로희망조사(제2회) 1월 : 3자면담(제2회) 2월 : 진로별 집회, 개인면담(제3회)
3학년	4월 : 진로희망조사(제1회), 개인면담 5월 : 학년집회(진로실현을 위해서), 진로 시간(자신 알기), 6월 : 진로별 집회(제1회) 8월 : 선배 조언, 3자 면담 9월 : 센터시험 설명회 12월 : 진로별 집회(제2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금년도(2003년도)부터 ‘통합적 학습시간(總合的な學習の時間)’이 새롭게 설치되어, 그 시간을 모두 진로에 관한 지도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Ⅳ. 진학지도 실태

1. 체험입학

수험을 생각하고 있는 중학생이나 그 학부모, 나아가 중학교 교사를 초청하여 학교를 소

개하고 수업을 체험하게 한다. 여름 방학 중에 실시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의 요구에 맞는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을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수준 높은 진학교라고 하더라도 입학시험 때 수험생들이 너무 힘든 고등학교라고 기피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 측에서는 예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진학교에 가고 싶지만 기피하게 되는 이유는 그 학교의 학생지도가 대단히 엄격하다

는 것을 커다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공부는 제쳐두고, 될 수 있으면 교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은 생각을 가진 중학생도 많다.

또한 사립학교와의 경합도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대학수험에 유리한 사립 중·고 일관교(中高一貫校 :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하여 교육하는 시스템을 말함.)가 홋카이도에서도 대단히 주목을 끌고 있다. 중·고 일관교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수험과목을 끝내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수험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게 된다. 홋카이도에서는 연계형(교사(校舎)와 설치자가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와의 일관교육)의 중·고 일관교는 몇 개 있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어 배울 수 있는 중등교육 학교는 아직 없다.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체험입학은 아동 수 감소(小子化) 및 사학과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학지도의 전단계로서 학교의 엄격한 진학지도를 이해하여 본의 아닌 입학 및 부적응 학생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로 생각되고 있다.

2. 선배로부터의 조언

졸업생을 강사로 초빙하여 고등학교 시절의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생활에 대해서 혹은 대학에서의 수업 및 연구내용 등에 대해서 재학생들에게 이야기하여 주도록 한다. 보통 Long Homeroom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에 몇 명씩 배치된다. 예컨대 국립대학교 자연계에

합격한 학생이 전반부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사립대학교 인문계에 진학한 학생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보통 교사로부터는 꾸지람이나 충고 등이 많으나, 선배로부터의 이야기는 신선감을 주게 되며 조언에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실패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학생도 있어서 이야기를 듣는 고등학생에게 참고가 되는 듯 보인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꼭 선배에 한정하지는 않고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을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대학에서의 연구내용에 대해서 직접 들음으로써 희망대학 결정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3. 진로 개인면담

진로실현을 위한 지원(支援)으로서 개인면담이 갖는 역할은 크다. 왜냐하면 진로지도는 꿈을 갖게 하는 지도, 꿈을 키우는 조언, 꿈의 실현을 밀어 주는 지원이기 때문이다. 담임이 일상적으로 학생의 고민상담에 대응하는 면담과는 달리, 특히 진로에 관한 개인면담을 연 2~3회 정도 방과 후를 이용하여 전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주간 혹은 면접월간을 설정하여 임하는 학교도 많다. 학년에 따라 이루어지는 면접항목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학년의 제1회째의 면접은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여기서는 먼저 학습의욕을 어떻게 하면 환기시킬 수 있을가가 과제이다. 매일 계속되는 학습이 진로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면담내용도 '왜 공부하는가?', '고등학교 수업에 대한 느낌', '예습, 복습 등 가정학습 상황', '부(部) 활동과의 양

립'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 수업에 임하는 방식 및 가정학습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가정학습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정학습 시간의 평균을 보면, 일본이 57분, 한국이 1시간 20분으로 나타나 있다. 1시간 20분 이상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일본이 25%, 한국이 38%이었다. 한편 TV 시청 시간의 평균을 보면 일본이 2시간 26분으로 한국보다 55분이나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ベネッセ未來教育センター, 『東京の中學生・ソウルの中學生』, 2003).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가정학습의 기록 노트를 갖추게 하고 매일 답임이 점검하여 가정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노력이 들긴 하지만 3년간 계속한 경우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자기이해에 관한 사항도 면담의 중요한 주제이다. 장래의 진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막연한 진로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처음에는 많다. 예컨대 '자기의 적성 파악', '흥미·관심이 있는 분야', '장래의 꿈과 희망' 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담은 진로목표의 설정 및 진로계획의 작성 그 목적이다. 3년간의 면담기록 노트(학생용)와 도중에 답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담기록 카드(교사용)를 갖추어 두는 학교가 많다.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 적성검사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1학년 때의 제2회째의 면담은 도중에 학생들이 느슨해지는 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열등감 및 좌절감을 가진 학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는 당초의 진로목표 및 진로계획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직업 및 일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며, 또한 인문계·자연계 선택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인문계·자연계 선택이란 대학의 수험과목을 고려한 과목선택을 말하는 것으로, 2학년 이후부터 인문계(국어 및 사회 수업이 많음.)와 자연계(수학 및 과학 수업이 많음.) 코스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이 인문계·자연계 선택은 학생의 진로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학년집회 및 보호자 간담회, 제3차 면담(학생·보호자·담임)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3회째의 면담은 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반성평가(반성회)이다. 여기에서는 목표에 비추어 어떤 미비점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안이하게 목표수준을 낮추어 수정(예컨대, 노력부족을 이유로 지망대학의 수준을 낮추는 것)하지 않도록 하는 조언 및 지도가 필요하게 된다.

2학년의 첫 면접에서는 인문계·자연계 선택을 바탕으로 진로목표의 명확화와 초점화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서는 진로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해 간다. 제2회 면담 이후부터는 지망대학·학부를 구체화시키도록 이끈다. 그것이 학습의욕의 환기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학년 후반(10월~11월)에 3박 4일 정도의 견학여행을 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 행사가 끝나면 학급도 본격적인 수험분위기로 바뀌어 간다. 이러한 학급 분위기가 중요하게 되는데, 목표를 잃은 무기력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요구된다. 그리고 제3회째의 면담에서는 학부모도 참가하여 수험에

대비한 계획(전략)을 명확하게 하여 최종 학년을 맞이하게 된다.

3학년은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의 확인, 취약과목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 휴일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정신위생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조언 등을 해 가게 된다. 운동관계의 부(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6월~8월이 마지막 대회가 되는데, 대회 후에 마음가짐의 전환을 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수험 전날 수험생에게 주는 특이한 조언으로 “수험 당일에는 최고의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

4. 교육과정

홋카이도의 고등학교에서는 4~5년 전부터 2학기제를 도입하여 단위제(單位制)의 취지를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당시까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2개의 장기 방학을 없앤 3학기제가 대부분이었으나, 2학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업 시수 확보와 매학기의 단위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 등이 진학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현행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74단위의 취득으로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채울 수 있다. 일본의 공립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주5일제하에서 보통 1일 50분 6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주에 30시간이 되며, 그 중 1시간은 학급활동(ホームルーム活動)에 이용되기 때문에 교과·과목의 수업은 29시간이 된다(학교에 따라서는 주1회 7시간제의 수업을 편성하

여 거기에서 학급활동을 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3년간 $29 \times 3 = 87$ 단위의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3학년의 전기까지 모든 단위를 취득한다면 72.5단위가 되어, 3학년 후기(10월부터)에는 수험과목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예컨대 학생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여 해결하는 ‘과제연구’ 등의 과목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졸업 때까지 20단위라면 ‘학교설정과목’이라고 하여 학교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목도 있다. 나아가 후기의 모든 단위를 취득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받지 않고 자습과 같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3학년 전기까지 교과서 내용을 끝마쳐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5. 과외학습

여기서 과외학습이란 정규의 6시간 수업 이외에 행하는 수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0교시의 아침학습, 7교시와 8교시의 방과 후 강습, 토요일강습, 방학 중의 강습 등이 있다. 이들 과외학습은 희망한 학생이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자가 조사한 진학교에서는 항상 80%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교의 학생 중에는 입시학원(豫備校) 주최의 강습을 받는 학생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학생의 학력실태를 고려한 지도 및 이동시간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점, 일상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볍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수강료가 저렴하다는 점 등의 이점을 생각하여 자기 학교에서의 강습을 수강하는 학생이 많다.

입시학원의 뛰어난 수업을 위성통신을 통해 활용한 대형 모니터 TV를 이용하여 강습을 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의 교사들이 강습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교사의 직무능력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진학교에서는 이 과외학습이 수험지도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다양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예컨대 1) 대학입시센터가 주최하는 센터시험만 활용하는 경우, 2) 센터시험과 함께 대학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2차시험의 합계로 합격·불합격의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기와 후기의 2회로 정원을 나누어 선발하고 후기시험에서는 소논문을 부과하는 '분리분할' 방식을 채택하는 대학이 많다.), 3) 대학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험만(사립대학의 경우 이 형태가 많음.) 활용하는 경우, 4) AO(Admissions Office) 입시(상세한 것은 비록 나누어지지만, 학생 추천에 의함), 5) 추천입시(학교장 추천에 의함.) 등이 있다. 선다형의 센터시험에 대한 대책, AO 입시대책으로서의 면접지도, 학생추천과 관련한 자기소개서의 지도, 후기시험 대책으로서의 소논문 지도 등 다양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수업과 강습의 연계를 들 수 있다. 본래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강습이 우선되고 마는 위험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담임업무의 경감 및 조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무부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

대 교육과정 편성 및 매일의 수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교무부가, 그리고 학교에서의 생활규율에 대해서는 학생지도부가, 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로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분장간에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면서 운영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에 따라 각 분장의 의도에 차이가 생겨날 경우가 있다. 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기초·기본이 무엇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학력을 습득시켜 오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수업수준을 설정하여 학습하도록 하면서 그런 후에 강습에서 수험학력을 습득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치밀한 검증과 면밀한 검토 아래 수업과 강습을 연계시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6.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대학교수가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을 진행하고, 고등학생이 대학을 방문하여 연구내용 등을 조사하며, 개방된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등과 같이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단위제의 취지를 살려 대학강의 수강 및 레포트 제출을 고등학교 졸업단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그 학생이 수강한 대학에 합격하면 그 단위를 대학의 졸업단위로 인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대학교 연계의 배경에는 대학 존속의 위기감이라는 것이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 수 감소(少子化)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7년에는 아무 대학이나 진학하려고 한다면 누구든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된

“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에 취직하지 않는, 또는 취직을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소위 프리터의 문제(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말함)이다.

바뀌 생각해 보면, 우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학생과

우선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이 목표인 진로지도의

실태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

다. 국가공무원의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국립 대학이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안이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지방의 사립 대학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수험자 전원 합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 측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과 간단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전개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진학교의 대응으로 이와 같은 고등학교·대학교 연계를 생각할 경우 최첨단의 연구를 실제로 접해 봄으로써 목표하는 대학이 명확하게 되고, 또한 대학의 분위기 및 학통(그 대학의 학문적 전통)에 접하도록 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전에는 근소한 차이로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명한 대학을 선택하려는 학생이 많았으나, 그 결과로 소위 5월병(五月病; 고생해서 합격한 대학에 실망한다고 하는 의미의 병을 가리킴.) 등 원하지 않았던 대학에 입학하여 중도에 자퇴하는 사태가 생겼던 것도 사실이

었다. 이러한 고등학교·대학 연계로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장차 일하고 싶은 직업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Ⅳ. 진학지도의 과제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에 취직하지 않는, 또는 취직을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소위 프리터의 문제(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말함)이다. 바뀌 생각해 보면, 우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학생과 우선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이 목표인 진로지도의 실태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수험학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사명의 하나이겠지만, 인격형성을 해야 하는 청년기의 자아육성 및 철학형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특히 진학교에서는 수험학력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지도 및 근로관, 직업관, 윤리관의 육성을 제쳐두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최첨단의 과학 및 기술을 습득한 인간이 철학 및 윤리관을 갖추지 못해 그 성과의 잘못된 활용으

로 사회불안을 초래한 사건도 간혹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논문의 제목으로 사회성 및 도덕에 관한 것, 리더쉽 및 지도력에 관한 것을 다루어 생각해 볼 기회를 주거나, 면접 연습에 집단면접 및 토론을 도입하거나, 독해력 육성도 겸하여 0교시에 '아침 독서'를 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대학입시의 다양화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고등학교 3년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확실한 학력과 풍부한 인간성이 균형을 이룬 교육을 할 것이 요구된다. 학력에 대하여는 대학·학부의 종류에 대응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이 교육과정 단계부터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성 육성에 대하여는 학교교육으로만은 한계에 직면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한 면에서 확실히 가정의 교육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학부모와의 연수회 등을 활용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등 고등학교와 가정의 보다 진진된 연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소개한 진학지도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교사의 숙고와 학년회의 숙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로지도부 및 학교의 노력과 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부족한 점이 많은 필자의 논고이지만, 한국의 향후 교육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中島章夫·淺田匡 編著. 『中等教育ルネッサンス』. 學事出版, 2003.
 北海道札幌手稻高校. 『進路指導資料』 他.
 北海道札幌東高校. 『進路のしおり』 他.

고토 토시키

히로사키대학교(弘前大學) 이학부를 졸업하고, 쓰쿠바대학교(筑波大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홋카이도 삿포로도우호구(稚北)고등학교 등의 교사를 거쳐, 현재 홋카이도무로란(北海道室蘭)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普通科大規模校のカリキュラム改革』, 『こどもが参加する授業経営』, 『學校課題と意思決定』, 『生徒による授業評価の功罪』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高等學校のカリキュラム評価に関する研究”, “昇任教頭の役割獲得に関する一考察” 등이 있다.

정영근 譯

동아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교(筑波大學)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